

국내 재난 주관방송사의 재난보도 프레임 분석 : 지카 바이러스 보도를 중심으로

Analysis of Disaster News Frame of Host Broadcaster for Disaster Broadcasting Services : Focusing on Zika Virus News

최민음*, 정희수**

고려대학교 미디어산업연구센터*,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Mideum Choi(aledma83@nate.com)*, Heesoo Chung(mmhorn77@hotmail.com)**

요약

국내 방송사업자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재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고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특히 한국공영방송 KBS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의하여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방송을 송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재난주관방송사가 지카바이러스와 관련된 사회적 재난 보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고, 재난 대응에 도움이 되는 프레임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였는지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이 발생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실 전달 프레임'의 비중이 가장 많았다. 반면 지카 바이러스의 원인 및 예방법을 소개하거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시 목격되는 증상과 진단 및 검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즉 '정보성 프레임'을 활용한 기사와 대책 마련에 대한 '책임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 보도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프레임 분석 | 재난방송 | 재난보도 | 지카바이러스 | 재난주관방송사 |

Abstract

Domestic broadcasting companies are obliged to provide the disaster information quickly to protect the public from the disaster, and people can prepare the disaster. Especially, Korea Broadcasting System (KBS) has a duty to deliver disaster news more quickly and accurately than other broadcasting companies because it is designated as a host broadcaster for disaster broadcasting servi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of the Broadcasting Ac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KBS deals with social disaster news related to Zika virus, and evaluated whether they used the frames in a timely manner to help people prepare a disaste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tried to suggest practical implications for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disaster news report.

■ keyword : | Framing | Disaster News | Emergency News | Zika Virus |

I. 서론

재난(災難, disaster)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해로운 영향을 뜻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강풍, 대설, 가뭄, 지진과 같이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가 포함되며, 사회재난에는 화재나 붕괴, 항공 및 해상사고, 감염병 및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된다. 한편 한국기자협회의 재난보도준칙에 따르면, 재난은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등 인적재난, 전기 등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는 재난, 감염병 등 질병재난, 그리고 대형사건·사고 등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된다.

국가는 이와 같은 다양한 재난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난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였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 이에 KBS는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며,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재난방송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그러나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등을 겪으면서 국가적 재난에 대하는 방송사업자의 시각과 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신속성에만 치우쳐 정확한 내용을 보도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재난 보도의 선정성과 정보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방송사의 재난보도의 양상과 핵심 프레임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재난 주관방송사가 실무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을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에 착안하여, 언론 보도를 통해 재난 발생을 막거나 혹은 인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재난에 중점을 두었다. 예컨대 근원지가 중동인 메르스 바이러스의 경우 중동을 비롯한 해외 발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는 질병재난의 경우 정부 및 언론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대응에 따라 재난을 원천 봉쇄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질병재난인 지카 바이러스 사태에 주목하고 관련 언론 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1950년 나이지리아와 탄자니아에서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아프리카에서 간헐적인 유행이 나타나다가 최근 브라질 등지에서 대유행하였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이 보이자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2월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은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되며 2016년 17명, 2017년 11명의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다[1].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감염병 감시연보’에 의하면, 국외유입 감염질환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모기 매개 질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 반면 국외유입 감염 질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현상과 반대로 오히려 감염질환에 대한 예방 및 준비, 경각심 인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8.6%가 ‘낮다’고 응답했고 질병 예방활동 실천의지 역시 60~70% 정도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2]. 해외여행을 떠나는 출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8년도에는 3,000만 명이 해외 여행을 다녀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 질병 재난을 다루는 언론 보도의 책임과 중요도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모기 매개 질환 중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언론 보도 행태를 분석하였다.

II. 재난보도의 양상 및 프레임 관련 선행연구 고찰

전술한 바와 같이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재난을 예방하고 대피,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방송 송출을 통해 국민에게 알릴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에 언론 및 미디어 학자들은 방송사업자들의 재난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시사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3]. 특히 재난보도의 프레임을 분석하는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는데 관련하여 Weaver(2007)는 프레임 연구가 지난 10년 간 가장 활발히 진행된 연구 영역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4, 95쪽 재인용]. 프레임(frame, 틀)이란 언론이 '이슈에 대한 특정 관점을 의도적으로 선택 혹은 배제함으로써 핵심을 축소하거나 과장하여 전달하는 패턴'을 의미한다[5][6]. 따라서 언론이 어떠한 프레임을 활용하여 일련의 사건, 사고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수용자의 인식, 나아가 행위까지 달라진다고[7]. 학자들은 이처럼 언론보도의 프레임이 수용자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프레임 분석을 통해 언론을 끊임없이 분석, 평가하고 있다.

뉴스의 프레임 유목을 도출하는 방식은 크게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8]. 연역적 접근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활용되고 검증되어 온 프레임 유목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귀납적 접근은 연구의 특성에 따라 직접 프레임 유목을 추출하여 분석에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재난보도에 대한 프레임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목적, 재난의 속성 등에 따라 알맞은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일본 대지진 원전사태에 대한 국내 보도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기사제목에 나타난 핵심 아이디어를 요약하여, 피해 수준, 복구 노력, 온정, 정치/경제영향, 오염, 위험논란, 위험대상 확대 등 7개 주요 프레임을 구축하였다[9]. 분석 결과 뉴스 보도의 본문에서 오염프레임이 가장 자주 제시되고 있었는데, 이는 국내언론이 일본 지진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태풍 나리에 대한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1단계 프레임은 사전대책, 현장보도, 원인/책임규명, 사후대책으로 구분되었고, 보다 세분화된 2단계 프레임은 사전예방, 태풍 상황, 복구활동 등 11개 프레임으로 구분되었다[10].

또한 사회재난에 대한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임연희(2014)는 텔레비전 뉴스가 세월호 참사를 어떠한 프레임을 활용하여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11]. 분석 결과 1차 프레임은 현장보도, 원인/책임규명, 사후대책, 기타로 구분되었고 2차 프레임은 현장보도(구조현장/지원상황, 사망·유가족/자원봉사, 생존/사망자 조명, 구조이후 상황 등 4개 소분류 프레임), 원인/책임규명(침몰원인, 책임규명/처벌, 재난관리상 문제점 등 3개 소분류 프레임)과 사후대책(보상대책, 안전대책, 정책마련 등 3개 소분류 프레임)으로 추출되었다. 한편 프레임 분석 결과 현장보도 프레임이 전체의 62%로 가장 많았고, 원인/책임규명은 25.7%, 사후대책 프레임은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내 언론보도가 구조현장과 사망·유가족에 치우쳐 보도하였고 침몰의 원인이나 안전대책, 정책 마련에 대한 보도에는 소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재난의 시기에 따른 프레임 차이를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12][13]. 이승희와 송진(2014)은 세월호 조난 소식이 들린 시점부터 사고 초반 구조 활동이 이뤄진 시기를 제1시기로, 세월호 기관사 등의 책임이 제기된 시기를 제2시기로, 유가족의 시위가 있었던 기간을 제3시기로, 선장이 살인죄로 기소되는 등 책임규명이 이뤄진 시기를 제4시기로 구분하고 시기별 프레임 차이를 분석하였다[12]. 김태원과 정정주(2016)는 사고 중점 보도 단계를 1시기, 책임 공방 분석 단계를 2시기, 정치적 담론화 단계를 3시기로 구분하고 보도 기간별 보도 프레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선일보의 경우 1시기에 사건 공시 프레임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2시기에는 대립과 갈등 프레임과 비난 프레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시기에는 비난 프레임 보다 대립과 갈등 프레임이 더욱 높은 비중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는 이를 두고 조선일보가 3시기에 특히 여당과 야당, 혹은 유족과 정치권의 대립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처럼 재난보도 프레임 연구의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이나 대형사건 및 사고로 인한 사회적 재난에 치우쳐 연구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한 감염성 질병 재난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자가 기사를 읽어가며 직접 프레임을 구성하는 귀납적 접근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아가 재난의 시기에 따른 프레임 유형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재난주관방송사가 초기 재난 대응에 도움이 되는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지, 또는 재난이 수그러드는 마지막 시기에 적합한 프레임을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III. 재난보도 프레임 분석 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국내 재난 주관방송사가 재난보도를 어떠한 프레임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보도 유형, 뉴스 가치, 재난의 객체 등 재난보도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난 시기에 따른 핵심프레임과 보도의 전문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국내 재난주관방송사의 재난보도의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재난 시기별 재난보도의 핵심프레임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재난 시기별 재난보도의 전문성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1 표본 추출

이 연구는 국내 공영방송의 재난보도 행태와 특성을 살펴보았다. 재난 보도 및 재난 방송을 통해 지진, 대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해상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의 방송뉴스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KBS에서 방송 중인 뉴

스프로그램(뉴스9, 뉴스7, 뉴스5, 뉴스12, 아침뉴스타임, 930뉴스, 뉴스라인, 4시뉴스집중, 뉴스광장, 지구촌뉴스, 글로벌24, news today, 속보특보, 뉴스타임, 경제타임)을 모두 포함하였다. 분석 자료는 KBS 뉴스 홈페이지(<http://news.kbs.co.kr>)에서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16년 3월 22일부터 2017년 5월 6일까지 방송된 뉴스보도 중 보도제목(화면 자막)과 내용에 '지카' 단어가 포함된 기사를 연구자들이 모은 결과 269개의 기사가 수집되었다. 다만 보도내용이 정확히 일치, 중복되거나 '지카' 단어만 언급되었을 뿐 보도의 핵심 내용이 지카 바이러스가 아닐 경우 등을 제외한 총 218개 뉴스보도 기사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1.2 분석 유목

1.2.1 보도 유형

기사유형의 하위분석 유목 중 보도 유형은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스트레이트 기사, 인터뷰성 리포트, 기획성/심층성 리포트, 르포성 리포트 등 네 가지 유목으로 구성하였다[14]. 스트레이트 유형의 기사는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한 기사를 뜻하고 인터뷰성 리포트 유형은 인터뷰어와의 문답 내용이 보도의 중심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기획성/심층성 리포트 기사 유형은 기사가 사실에 근거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취재한 기획성 기사를 뜻하며, 르포성 리포트 유형은 재난 발생 현장에 직접 가서 취재하거나 현장을 중심으로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기사를 의미한다.

1.2.2 뉴스 가치

뉴스 가치는 저널리즘 측면에서 뉴스가 어떠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시의성, 영향력, 저명성, 유용성, 신기성, 흥미성, 갈등성, 심층성 등 8개 하위 항목으로 구성하였다[15][16]. 구체적으로 시의성 유목에는 최근

1. ① “미국 플로리다 주에 사는 지카리는 친구들이 이런 재주를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하면서...” (지구촌뉴스, 2016. 9. 5) ②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부부가 AIDS·에볼라·지카 등 질병 퇴치를 위한 연구에 우리돈으로 3조 3천억원을 기부하기로...” (뉴스12, 2016. 9. 22)

의 사건을 다루거나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 기사가 포함되며, 영향력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사회적 중요도가 높음을 강조한 기사가 포함되고, 저명성에는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나 장소에 관련된 뉴스 기사가 포함된다. 유용성 유목에는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뉴스 기사가 포함되고, 신기성에는 이상하고 기이한 사건을 다룬 기사가 포함되며, 흥미성에는 중요도는 크지 않더라도 독특하고 흥미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는 기사가 포함된다. 또한 갈등성 유목에는 뉴스 내에 주체 간 폭력, 충돌, 싸움, 긴장 등과 관련된 기사가 포함되고 심층성 유목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해석하는 기사가 포함된다.

1.2.3 재난의 객체

재난의 대상이 되는 재난의 객체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분석 기사를 읽어가면서 귀납적인 방식으로 유목을 분류한 결과 여성(임신부/신생아), 남성, 올림픽 참가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기타 등 5개 유목으로 구분되었다. 질병 재난의 객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여성으로 구분되거나 노인/비노인, 국내/국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재난의 시기나 특성에 따라 유목의 구성이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직접 기사를 분석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유목을 구성하였다.

1.2.4 핵심 프레임

핵심 프레임은 기사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핵심 주제 및 주제를 전달하는 틀(frame)을 의미한다. 분석 유목은 기본적으로 프레임 분석을 시행한 다양한 선행연구 [14][17-22]를 참조하되, 연구자들이 기사를 살펴보면서 귀납적으로 유목을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먼저 1차 범주로 <사실 전달 프레임>, <정보성 프레임>, <감정적 프레임>, <책임 프레임> 등 네 가지 프레임 유목을 구성하였다(핵심 프레임 대분류). 다음으로 보다 상세히 보도 프레임을 분석하기 위해 1차 범주를 세분화하여 2차 범주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실 전달

프레임>은 확진/소두증 발생, 위기/재난으로, <정보성 프레임>은 원인/예방, 증상/진단/검사로, <감정적 프레임>은 위험성/불안, 안심/안정으로, <책임 프레임>은 비난/불참, 대책 마련으로 범주화하였다(핵심 프레임 소분류). 구체적인 핵심 프레임 분석 유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핵심 프레임 분석 유목

핵심 프레임 대분류	핵심 프레임 소분류
사실 전달 프레임	확진/소두증 발생 프레임
	위기/재난 프레임
정보성 프레임	원인/예방 프레임
	증상/진단/검사 프레임
감정적 프레임	위험성/불안 프레임
	안심/안정 프레임
책임 프레임	비난/불참 프레임
	대책 마련 프레임

1.2.5 재난보도의 전문성

재난 메시지를 전달하는 뉴스 보도에서 정보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원에 따라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의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Hovland & Weiss(1951)는 신뢰도가 높은 정보원이 수용자에게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주장한 바 있다[23]. 반대로 시청자 역시 메시지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 정보원의 전문성이나 신뢰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전문가가 전달하는 재난 메시지가 비전문가가 전달하는 경우에 비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24].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성이 담보된 정보원을 활용하였는지, 어떠한 유형의 정보원을 활용하였는지, 의학전문기자가 취재하였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원 유형은 연구자들이 기사를 살펴보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전문유관기관, 전문가 등 귀납적으로 유목을 구성하였다. 한편 의학전문기자는 의사 출신의 기자이거나 오랜 기간 의학 분야를 담당한 전문 기사를 의미한다.

1.3 코딩 및 분석

언론학 전공 연구자와 언론학 전공 대학원 졸업생 총 두 명이 코딩에 참여하였다. 전체 데이터의 10%를 중복 코딩하여 코더 간 신뢰도를 점검하였으며 코헨의 카

파 값이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교차분석 결과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의 비율이 전체의 20%가 넘는 경우 몬테카를로(Monte Carlo) 유의 확률을 함께 제시하였다[25].

IV. 연구결과

1. 연구문제1의 해결:재난보도의 양상 분석결과

KBS 뉴스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지카 바이러스 관련 기사의 보도 유형을 살펴본 결과, 객관적 사실을 나열하여 보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가 124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시민이나 재난 전문가와의 대담이 주를 이루는 인터뷰성 리포트가 37건(17%)으로 뒤를 이었다. 리포터가 사실에 근거해 심층적으로 기획, 취재, 보도한 기획성/심층성 리포트와 현장의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보도하는 르포성 리포트는 각 29건(13.3%)과 28건(12.8%)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다음으로 지카 바이러스 관련 보도가 어떠한 뉴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최근의 소식 혹은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시의성(38.1%)' 가치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이 사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영향력(24.8%)' 가치가 뒤를 이었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 혹은 장소에 관련된 뉴스를 의미하는 '저명성(12.4%)'과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에 중점을 둔 '유용성' 가치(12.4%), 특이한 사건을 다루는 '신기성(7.3%)' 가치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흥미 요소에 중점을 두는 '흥미성(2.8%)' 가치와 다양한 주체 간 폭력, 충돌, 긴장 등과 관련된 뉴스를 의미하는 '갈등성(1.4%)' 가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심층성(0.9%)' 가치에 중점을 둔 기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울러 뉴스에서 재난의 대상을 누구로 한정하여 보도하고 있는지를 뜻하는 재난 보도의 객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객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즉

재난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내포하는 기사가 154건(70.6%)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임신부, 신생아)이 29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올림픽 참가자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기사는 25건(11.5%), 남성을 재난의 객체로 본 기사는 9건(4.1%)이었다.

2. 연구문제2의 해결:재난보도의 프레임 분석결과

1) 재난보도의 시기별 핵심 프레임 분석결과

재난 보도의 핵심 프레임을 대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나 소두증 환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재난 사실을 단순히 전달하는 '사실 전달 프레임'이 95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재난의 위험성을 강조해 불안을 야기하거나 혹은 지카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있고 예방이 가능해 안심해도 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감정적 프레임'이 58건(26.6%)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지카 바이러스의 원인이 무엇이며 예방법은 어떠한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진단, 검사 방법을 전달하는 '정보성 프레임'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 상황이나 재난의 책임 소재를 가려 비판하는 목소리와 재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한 '책임 프레임'은 각각 17.4%, 12.4%에 그쳤다.

한편 재난 시기에 따른 핵심 프레임을 교차 분석한 결과, 시기×핵심 프레임 대분류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chi^2=33.998$, $df=6$, $p<.001$). 구체적으로 1기에는 '사실 전달 프레임'과 '감정적 프레임'이 전체의 69%로 가장 많았고 '정보성 프레임'과 '책임 프레임'은 각 19%, 12.1%에 그쳤다. 반면 2기에는 네 가지 핵심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적 프레임'이 35.4%로 가장 많았고, '사실 전달 프레임'이 29.2%, '정보성 프레임'이 20.4%, '책임 프레임'이 15%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3기의 경우 '사실 전달 프레임'이 78.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나머지 세 프레임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시기별 핵심 프레임 대분류 차이 N(%)

시기 프레임대분류	1	2	3	합계
사실 전달 프레임	25 (43.1)	33 (29.2)	37 (78.7)	95 (43.6)
정보성 프레임	11 (19.0)	23 (20.4)	4 (8.5)	38 (17.4)
감정적 프레임	15 (25.9)	40 (35.4)	3 (6.4)	58 (26.6)
책임 프레임	7 (12.1)	17 (15.0)	3 (6.4)	27 (12.4)
합계	58 (100)	113 (100)	47 (100)	218 (100)

$\chi^2=33.998, df=6, p<.001$

다음으로 재난 보도의 핵심 프레임을 2차 범주로 소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위기/재난 프레임’이 53건(24.3%)으로 가장 많았고 ‘위험성/불안 프레임’이 46건(21.1%), ‘확진/소두증 발생 프레임’이 42건(19.3%), ‘원인/예방 프레임’이 26건(11.9%), ‘대책 마련 프레임’이 16건(7.3%)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증상/진단/검사 프레임(5.5%)’과 ‘안심/안정 프레임(5.5%)’, ‘비난/불참 프레임(5.0%)’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한편 재난 시기에 따른 핵심 프레임 소분류를 교차 분석한 결과, 시기×핵심 프레임 소분류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chi^2=81.517, df=14, p<.001$). 구체적으로 1기와 2기 모두 ‘확진/소두증 발생 프레임’과 ‘위험성/불안 프레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기에는 ‘확진/소두증 발생 프레임’이, 2기에는 ‘위험성/불안 프레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1, 2기 모두 구체적인 지카 바이러스 진단법이나 검사 방법을 소개하거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을 덜어주는 안심 프레임의 비중이 매우 적었다. 한편 2기에 ‘비난/불참 프레임’이 8.8%로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된 것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16 하계 올림픽 선수 및 관광객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어 올림픽 불참 선언을 한 보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3기의 경우 ‘위기/재난 프레임’과 ‘확진/소두증 발생 프레임’이 전체의 78.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재난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는 재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재난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과 발생 수를 단순히 나열하는 보도가 주를 이룬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싱가포르

에서 발생한 지카 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 재난이 더 이상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재난으로 변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시기이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표 3. 시기별 핵심 프레임 소분류 차이 N(%)

시기 프레임소분류	1	2	3	합계	
사실 전달	확진/소두증 발생	15 (25.0)	23 (20.4)	4 (8.5)	42 (19.3)
	위기/재난	10 (17.2)	10 (8.8)	33 (70.2)	53 (24.3)
정보성	원인/예방	7 (12.1)	16 (14.2)	3 (6.4)	26 (11.9)
	증상/진단/검사	4 (6.9)	7 (6.2)	1 (2.1)	12 (5.5)
감정적	위험성/불안	12 (20.7)	33 (29.2)	1 (2.1)	46 (21.1)
	안심/안정	3 (5.2)	7 (6.2)	2 (4.3)	12 (5.5)
책임	비난/불참	0 (0)	10 (8.8)	1 (2.1)	11 (5.0)
	대책마련	7 (12.1)	7 (6.2)	2 (4.3)	16 (7.3)
합계	58 (100)	113 (100)	47 (100)	218 (100)	

$\chi^2=81.517, df=14, p<.001, Fisher's Exact Test P<.001, Monte Carlo p<.001, Cramer's V=.43$

3. 연구문제1의 해결:재난보도의 전문성 분석결과

전문성 있는 정보원을 활용한 기사가 148건(67.9%), 정보원을 활용하지 않은 기사가 70건(32.1%)으로 분석되었다. 재난 시기에 따른 시기별 정보원 전문성 유무의 차이를 교차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시기×정보원 유무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chi^2=8.163, df=2, p<.05$). 1~3기 모두 정보원을 활용한 기사가 더 많았지만 특히 3기에는 정보원을 활용한 기사가 전체의 85.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4. 시기별 정보원 전문성 유무 N(%)

시기 정보원 전문성	1	2	3	합계
있음	37 (63.8)	71 (62.8)	40 (85.1)	148 (67.9)
없음	21 (36.2)	42 (37.2)	7 (14.9)	70 (32.1)
합계	58 (100)	113 (100)	47 (100)	218 (100)

$\chi^2=8.163, df=2, p<.05$

다음으로 정보원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국내 전문유관기관을 활용한 기사가 49건(33.1%)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기사가 36건(24.3%), 해외 전문 유관기관을 활용한 경우가 27건(18.2%)으로 뒤를 이었다. 의사, 교수 등 의학전문가를 활용한 경우가 15건(10.1%), 국제기구의 발표나 통계자료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우가 10건(6.8%)으로 나타났다. 해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우에 비해 국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활용한 경우는 5건(3.4%)으로 매우 적었다.

한편 시기×활용 정보원 유형의 차이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chi^2=38.177$, $df=12$, $p<.001$). 1기에는 국내 전문유관기관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고(56.8%), 2기의 경우 국내/외 전문유관기관과 국내 전문가, 해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비교적 고루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기에는 해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우가 47.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다. 이는 싱가포르에서 발견된 집단 감염 사건 때문으로 짐작된다.

표 5. 시기별 정보원 유형 (N=148) N(%)

정보원 유형 \ 시기	1	2	3	합계
국내/중앙정부, 지자체	1 (2.7)	3 (4.2)	1 (2.5)	5 (3.4)
해외/중앙정부, 지자체	7 (18.9)	10 (14.1)	19 (47.5)	36 (24.3)
국내/전문유관기관	21 (56.8)	20 (28.2)	8 (20.0)	49 (33.1)
해외/전문유관기관	6 (16.2)	15 (21.1)	6 (15.0)	27 (18.2)
국내전문가	1 (2.7)	14 (19.7)	0 (0.0)	15 (10.1)
해외언론	0 (0.0)	4 (5.6)	2 (5.0)	6 (4.1)
국제기구	1 (2.7)	5 (7.0)	4 (10.0)	10 (6.8)
합계	37 (100)	71 (100)	40 (100)	148 (100)

$\chi^2=38.177$, $df=12$, $p<.001$, Fisher's Exact Test $P<.001$, Monte Carlo $p<.001$, Cramer's $V=.36$

마지막으로 의학전문기자가 취재, 작성한 기사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3.7%에 그쳤다. 218건의 보도 중에서 210건이 일반기자가 작성한 기사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표 6. 시기별 의학전문기자 취재 여부 N(%)

기자 유형 \ 시기	1	2	3	합계
의학전문기자 언급됨	4 (6.9)	4 (3.5)	0 (0.0)	8 (3.7)
의학전문기자 언급안됨	54 (93.1)	109 (96.5)	47 (100)	210 (96.3)
합계	58 (100)	113 (100)	47 (100)	218 (100)

$\chi^2=3.504$, $df=2$, $p>.1$, Fisher's Exact Test $P>.1$, Monte Carlo $p>.1$, Cramer's $V=.13$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국내 언론이 국가 재난 상황을 수용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의 뉴스프로그램에 나타난 재난보도 양상과 프레임 분석함으로써 언론이 수용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재난의 담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재난보도의 양상을 살펴본 결과, 전체 지카 바이러스 관련 보도의 절반 이상이 스트레이트형 기사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우려)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단순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사가 많았다. 동일한 맥락에서 최근에 발생한 사고나 사건을 다루는 뉴스의 '시의성' 가치가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국내 언론이 재난 발생 사실을 국민에게 서둘러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재난의 선포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재난 관련 이슈를 구체적으로 해석, 설명해주는 '심층성' 가치는 매우 적었다. 리포터가 재난 상황을 심층적으로 기획, 취재, 보도하는 기획성/심층성 유형의 기사 역시 다른 유형에 견주어볼 때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적었다.

한편 뉴스 보도에 나타난 재난의 객체, 다시 말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를 누구로 지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보도가 재난의 대상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을 재난의 대상으로 지목한 경우가 남성을 재난의 대상으로 본 경우의 세 배를 넘는다는 점이다. 가임기 여성 혹은 임신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소두증에 걸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성(임신부, 신생아)에 주목

한 기사가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지카 바이러스는 성관계에 의한 감염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남성의 몸에 두 달 이상 생존해있다 양성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다. 남성의 몸에 잠복해있다 여성에게 전염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2016년 국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남성이 76.5%로 여성의 세 배 이상 많았다[1]. 반면 가임기 여성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임신을 했을 때 소두증의 아이가 태어난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된다 바 있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소두증 감염 신생아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많이 한 것은 시청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의 일면은 아닌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재난보도의 핵심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재난이 발생한 사실을 전달하는 ‘사실 전달 프레임’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스트레이트형’ 기사와 ‘시의성’ 뉴스 가치가 담긴 기사가 많았다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더욱이 재난의 시기를 1~3기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을 때 재난의 1기가 아닌 3기에서 ‘사실 전달 프레임’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다. 지카 바이러스가 처음 목격된 발생 초기가 아닌 3기에 재난 사실을 알리는 보도가 많았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다. 반면 지카 바이러스의 원인 및 예방법을 소개하거나 지카 바이러스 감염 시 목격되는 증상과 진단 및 검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 즉 ‘정보성 프레임’을 활용한 기사는 전체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론은 재난 상황을 신속히 수용자들에게 알리는 의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피해가고, 보다 말 빠르게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내 언론보도는 재난을 개별적인 사건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사건의 정황에 초점을 맞춰 재난이 발생한 원유나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핵심 프레임을 소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언론은

‘위기/재난 프레임’과 ‘위험성/불안 프레임’, ‘확신 소두증 발생 프레임’의 순으로 많이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증상/진단/검사 프레임’과 ‘안심/안정 프레임’의 비중은 매우 적었다. 마찬가지로 국내 언론이 재난에 대한 위험성만 강조할 뿐, 국민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는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하여 일본의 NHK의 경우 재해대책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규정에 따라 언론사 취재인력을 훈련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해를 단순히 증계, 전달하거나 제3자의 위치에서 객관적 사실을 나열하는 보도를 지양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27][28]. 또한 신속한 대응만큼이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 언론사도 선진적인 재난 보도 준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따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보도의 전문성을 살펴본 결과, 전문적인 정보원을 활용한 기사가 절반 이상으로 분석되었고 그 중에서도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국내 전문 유관기관을 정보원으로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춘 정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은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의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자나 의사 출신의 기자가 취재한 기사의 비중은 전체의 3.7%로 매우 미미하였다. 질병,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에 보다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언론사 차원에서 전문 기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전문성이 담보된 정보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재난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가 정보의 신뢰도를 직접 검증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친다면 언론을 접하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언론사에 지진이나 원전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기자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국내 언론사도 재난 전문 취재 인력을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국가재난방송사의 재난 보도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재난 보도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정리하자면, 첫째 재난시기에 따른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재

난의 발생과 동시에 서둘러 재난을 공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단순히 재난을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재난을 예방하거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난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는 동일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 마련 및 개선에 대한 보도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재난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에만 주력하지 말고 재난의 위험성과 재난에 대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균형 있게 보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언하였듯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위험성만 강조하는 것은 황색 저널리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셋째, 재난의 객체를 주의 깊게 선정하여 보도함으로써 재난의 대상자(예:노인, 남성, 어린이 등)가 효율적으로 재난을 예방,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만약 특별한 재난의 객체가 없을 경우, 남녀노소 누구나 재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보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재난보도의 정보원 활용에 있어 전문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재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원을 활용해야 한다. 언론사가 재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실무적 함의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효율적인 재난보도

다만 본 연구는 언론 보도의 측면만 조명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재난 보도를 수용하는 사람들이 재난 보도의 프레임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를 통해 재난 보도의 프레임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도 상반기 사이에 지카 바이러스 관련 보도량이 매우 적어 이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국과 같이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아닌 재난이 현재 발생 중인, 다시 말해 직접적인 감염률이 높은 동남아 국가의 뉴스 기사 데이터를 참고하여 국가 간 비교 연구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계를 보완해나갈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국외 재난 국가의 데이터를 추가하여 분석하거나 국가 간 비교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1] <http://www.cdc.go.kr/CDC/info/CdcKrInfo0301.jsp?menuIds=HOME001-MNU1154-MNU0005-MNU0037-MNU1380&cid=78951>, 2018.02.22.
- [2] 박민욱, “줄거운 여름휴가, 해외여행 안전하게 보내려면?,” 메디파나뉴스, 2018.06.27.
- [3] 최진봉, “방송 뉴스의 재난보도 콘텐츠에 대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539-550, 2016.
- [4] 이동규, 이주호, 이대근, 김정훈, “부산지하철 안전문제 뉴스프레임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7권, 제2호, pp.93-116, 2013.
- [5] S. Iyengar and A. Simon,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In W. L. Bennett & D. L. Paletz (Eds.), *Taken by storm: The media,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in Gulf Wa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167-185, 1994.
- [6] 최민음, 태보라, “국내 신문의 ‘스캔들’ 보도 프레임 분석: 실제의 사회적 구성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8호, pp.98-109, 2017.
- [7] T. Gitlin, *The whole world is watching*,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 [8] H. A. Semetko and P. M. Valkenburg,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0, No.2, pp.93-109, 2000.
- [9] 조은희, “국내신문의 일본 대지진 원진사태 보도특성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1호, pp.117-143, 2012.

[10] 이경미, 최낙진, “태풍 나리 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연구,” 언론정보연구, 제45권, 제1호, pp.97-129, 2008.

[11] 임연희,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4호, pp.179-201, 2014.

[12] 이승희, 송진, “재난보도에 나타난 소셜 미디어와 방송 뉴스의 매체 간 의제설정,”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6호, pp.7-39, 2016.

[13] 김태원, 정정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기별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1호, pp.199-224, 2016.

[14] 임연희, “세월호 참사에 대한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행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4호, pp.179-201, 2014.

[15] 강내원, 김경모, 김남두, 김사승, 김성해, 김춘식, 안종묵, 이기형, 이승선, 이재진, 이준웅, 임영호, 최영재, *저널리즘의 이해*, 경기도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2.

[16] 손승혜, 황화성, 장운재, “한국 언론의 교육보도 특성과 뉴스 가치 분석,” 미디어와 교육, 제1권, 제1호, pp.115-141, 2011.

[17] 이경미, 최낙진, “태풍 ‘나리’ 관련 제주지역의 재난방송보도 연구,” 언론정보연구, 제45권, 제1호, pp.97-129, 2008.

[18] 조은희, “국내신문의 일본 대지진 원전사태 보도 특성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1호, pp.117-143, 2012.

[19] 이화행, 정성호,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 보도 경향 연구,” 언론학연구, 제18권, 제2호, pp.157-183, 2014.

[20] 이완수, 배재영, “세월호 사고 뉴스 프레임의 비대칭적 편향성: 언론의 차별적 관점과 해석 방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71호, pp.274-298, 2015.

[21] 박건숙, “전염병 보도 프레임 연구,” 한국어 의미학, 제52호, pp.1-29, 2016.

[22] 이승희, 송진, “재난보도에 나타난 소셜 미디어와 방송 뉴스의 매체 간 의제설정,”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6호, pp.7-39, 2014.

[23] C. I. Hovland and W. Weiss, “The influence of source credibility on communication effectivenes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15, pp.635-650, 1951.

[24] 조삼섭, 한규훈, “여성암 조기검진 촉진 캠페인의 설득효과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1권, 제1호, pp.248-275, 2009.

[25] 김민성, 윤영민, “잊혀질 권리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한국과 미국, 영국의 보도 프레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언론학회, 제15권, 제3호, pp.33-66, 2015.

[26] <http://news1.kr/articles/?2563325>, 2016.02.02.

[27] 백승권, “해외언론 재난보도 어떻게 하나,” 미디어오늘, 1998.08.26.

[28] 이동훈, 김지운, 강현숙, 이혜립,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심리지원체계 고찰과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7호, pp.73-90, 2016.

저 자 소개

최 민 음(Mideum Choi)

중신회원



- 2015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
- 2015년 6월 ~ 2016년 5월 : KBS 방송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 2016년 11월 ~ 2017년 8월 :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고려대학교 미디어산업 연구센터 객원연구원

<관심분야> : 미디어 수용자 연구, 뉴미디어 콘텐츠

정 희 수(Heesoo Chung)

정회원



- 2010년 ~ 현재 : 농업회사법인(주)중원에프앤디 대표
- 2011년 2월 :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졸업(석사)
- 2014년 2월 :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 소비자 행동 연구, 뉴미디어 콘텐츠, 저널리즘